美 독립영화 카사베츠 감독 대표작 만나다

광주극장, 13일~29일 스페셜전 '그림자들' '얼굴들' 등 5편 상영 김희정 감독 27일 시네토크도

미국 독립영화의 전설 '존 카사베츠' 특별전이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미국 독립영화의 전설 존 카사베츠 감독(1929~1989)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극장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존 카사베츠 스페셜전을 개최한다.

뛰어난 배우이자 감독으로서 미국 독립 영화의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존 카사베츠는 적은 제작비, 소수의 스탭과 함께 하는 제작 방식을 고수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영화 세계를 만들었다.

특히 배우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메소드 액팅'과는 또 다른 스타일의 사실적인 연기 연출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한 캐릭터가 소화할 수 있는 최대한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스크린에 담아 냈다. 이번 기획전은 제작 방식이나 영화 연출에서 관습적인 방식에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삶을 긍정했던 존 카사베츠의 영화들을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다.

상영작은 모두 5편이다.

'그림자들'(1959)은 뉴욕에 사는 다양한 젊은이들의 모습을 담은 그의 장편 데뷔작이며 미국 중산층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 '얼굴들'(1968)은 그해 베니스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작이다.

또 '영향 아래 있는 여자'(1974)는 아내 지나 롤랜즈와 카사베츠의 절친인 '형사 콜롬보'의 피터 포크가 함께 주연을 맡은 작품이며 카사베츠만의 독특한 연출이 돋보이는 필름 느와르 '차이니즈 부키의 죽음'(1976)은 마틴 스콜세지와 함께 구강한 갱스터 무비다. 그밖에 지나 롤랜즈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오프닝 나이트'(1977)도 상영된다.

27일 오후 7시에는 존 카사베츠의 열혈팬 '프랑스 여자'의 김희정 감독이 '오프닝 나이트' 상영후 시네토크를 진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이름없는 이웃에 대한 감성과 이야기 시로 노래

고흥 출신 정미숙 시인 세번째 시집 '수제튀김…' 펴내

"많이도 흔들리며 온 길 금강 물빛에 실어 보낸다. 수면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짓, 새와 금강이 하나로 만나는 공중, 그 공중의 힘으로 오늘도 노래하며 걷는다."

고흥 출신 정미숙 시인이 세 번째 시집 '수제튀김 할 때마다 새를 생각해'를 펴냈다.

모두 60여 편의 작품이 담긴 시집에는 일상과 이름 없는 이웃에 대한 감성과 이야기를 노래한 시들이 적지 않다. 사소한 것들에 대한 애정과 그것을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따뜻한 내면이 읽혀진다.

"그녀 이름은 노경숙/ 30년 미싱사로 일했다// 공장에서 요구한 물량 맞추려/ 아침 8시에 출근하여/ 밤 11시까지 일을 이어갔다// 4대 보험 꿈도 못 꾼다/ 공식적인 임금노동자 아니기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만 받았고/ 그 어떤 보조금/ 역시 받지 못했다//(중략)// 지금 그녀/ 꽃 피어날 그날/ 그날을 기다리는 그녀/ 이름은 노경숙"

위 시 '그녀는 꽃'은 봉제노동자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다.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꽃 피어날 그날"을 기다리는 그녀를 상상하며 쓴 시는 가슴 한켠을 아리게 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사는 소시민들을 향한 시인의 애정은 허튼 수사나 묘사가 아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으로 예를 갖춘다.

정훈 평론가는 "정미숙은 이번 시집에서 삭막한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과 지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시인이 살면서 만난 사람들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몸짓과 삶의 바탕은 시인의 머리와 가슴에서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 있다"고 평한다.

한편 정미숙 시인은 2000년 '시와정신'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이카루스의 날개', '등에 핀 꽃'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곡성 출신 죽형 기리는 조태일문학상 공모

6월 30일까지 접수

곡성 출신 죽형(竹兄) 조태일(1941~1999·사진) 시인을 기리는 제4회 조태일문학상(상금 2000만원)을 공모한다.

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무)는 제4회 조태일문학상을 오는 6월 30일까지 공모한다. 곡성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공모는 조태일 시인의 삶과 시 세계를 기리고 한국문학의 새로운 성과를 보여준 시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품은 최근 2년 이내(2020년 5월 1일 이후) 발간한 시집을 본인이 제출하거나 추천위원 추천을 통해 응모(접수-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60 광주문화예술회관 별관 1층 광주·전남작가회의 내 제4회 조태일문학상 담당자 앞)하면 된다.

조태일 시인 20주기를 맞아 지난 2019년 제정된 조태일문학상은 첫 수상자로 '당신은 북천에서 온 사람'의 이대흠 시인을, 2회 수상자로 '붉은빛이 여전합니까'의 손택수 시인, 제3회 '어린 왕자로부터 새드 무비'의 박남준 시인을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9월 곡성에서 열리는 조태일 시인 23주기 문학 축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홈페이지 참조, 문의는 이메일(guktopoet@naver.com)로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 67회 호남 예술제 입상자 명단

국악

〈심사위원〉
서담(전남도립대 교수)
윤종호(나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

◇ 해금 초등부 5,6학년
▲ 은상
1 박하율(살레시오초6)

◇ 해금 중등부 3학년
▲ 금상
1 문소정(수완중3)

◇ 가야금 산조 초등부 5,6학년
▲ 은상
1 김하빈(선창초6)

◇ 가야금 병창 초등부 5,6학년
▲ 금상
3 신소을(광주송원초5)
▲ 은상
1 유아인(광주송원초5)

◇ 가야금 병창 중등부 1,2학년
▲ 은상
1 신유나(광주송원중1)

◇ 가야금 병창 초등부 단체
▲ 금상
2 신소을 외 6명(광주송원초2~5)
▲ 은상
1 윤지향 외 6명(신암초4~6)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판소리·산조 무대로 토요상설공연 꾸민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7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오는 7일(오후 3시) 토요상설공연으로 판소리·산조 무대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김정민 씨의 김일구류 아쟁산조. 김일구류 아쟁산조는 김일구가 엮은 산조로 판소리적 요소와 다양한 국악기의 특징들을 아쟁산조에 담았다. 장단별로 다양한 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과 이완(강약), 엇박을 표현한 잉여걸이 가락이 특징이다.

전남도립국악단 상임단원으로 재직 중인 김정민 씨는 국악 입문을 판소리로 시작했으며 박종선류 아쟁산조와 김일구류 아쟁산조까지 두루 섭렵했다. 국악그룹 늘솜, 전통국악그룹 놀음판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이번 무대 장단은 광주시립창극단 상임단원 김준영 씨가 함께한다.

이어 김다정 씨의 동편제 김세종판 춘향가 중 이별가가 펼쳐진다. 동편제 김세종판 춘향가는 섬세하면서도 굵은 선율이 특징이다. 고수로는 전주전국고수 대회 일반부 대상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이영채 씨가 맡는다.

김정민

김다정

김다정 씨는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2002 보성소리축제 전국판소리경창대회 일반부 대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 사무국장, 향산주소연판소리보존회 이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편 오는 14일은 국악창작 무대로, 국악콘텐츠 제작소 나랩의 '민요, 오늘의 노래'가 펼쳐질 예정이다. 문의 062-670-850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시민교육 프로그램 마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지역사회와 함께 전당의 자원을 활용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ACC는 오는 13일 롯데백화점과 함께 'ACC × 롯데백화점 광주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19과 20일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아시아 정원에서 만나는 치유' 교육을 실시한다.

ACC 공공예술작품과 ACC 공간을 둘러보는 'ACC 특별투어'는 일본과 중국 고전 미술로 동아시아 3국 문화교류를 짚어보는 시간이다.

'아시아 정원에서 만나는 치유'는 ACC 공간 탐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시아의 정원 문화를 이해하고 꽃과 화분을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참여자가 긍정적인 심리 치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월요콘서트 참여 예술단체 모집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이 월요콘서트에 참여할 공연 예술단체를 모집한다.

월요콘서트는 오는 6월 13일부터 9월 5일까지(국경일 제외) 매주 월요일 총 12회에 걸쳐 빛고을시민문화관 별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선정되는 12개팀에게 는 출연료 300만원을 비롯해 공연장 및 부대시설(조명, 음향 장비 등) 등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70분 이내 공연 가능한 5명 이상의 광주지역 예술단체면 된다. 오는 9월부터 13일까지 문화재단 혹은 빛고을시민문화관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0823ssa@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최종 선정은 오는 23일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문의 062-670-7926. /박성천 기자 skypark@